

‘158전 159기’



강성훈이 13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델라스의 트리니티 포리스트 골프클럽에서 열린 PGA투어 AT&T 바이런 넬슨 마지막 라운드 18번홀에서 우승을 확정짓고 환호하는 갤러리를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성훈 PGA 첫 승...AT&T 바이런 넬슨 23연패파 한국선수 6번째 정상...‘최경주 조연 큰 도움 됐다’

강성훈(32)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데뷔 8년 만에 첫 우승을 달성했다. 강성훈은 13일 미국 텍사스주 델라스의 트리니티 포리스트 골프클럽(파 71-7558야드)에서 열린 PGA 투어 AT&T 바이런 넬슨(총상금 790만 달러)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3개를 묶어 4언더파 67타를 쳤다. 최종합계 23언더파 261타를 기록한 강성훈은 공동 2위인 멧 에브리(미국)와 스콧 피어시(미국)를 2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2011년부터 PGA 투어에서 활약한 강성훈은 부진으로 2013~2015년 투어 카드를 잃고 2부 투어인 웨딩캡 투어에서 뛰기도 했으나 159번째 대회에서 생애 첫 우승의 꿈을 이뤘다. 우승 상금은 142만2000달러(약 16억7000만원)다. 한국 국적 선수의 최근 PGA 투어 대회 우승은 2017년 5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의 김시우(24) 이후 2년 만이다. 강성훈은 최경주(49-8승), 양용은(47-2승), 배상문(33-2승), 노승열(28-1승), 김시우(2승)를 이어 한국인 6번째로 PGA 투어 무대 정상에 올랐다. 잔여 경기부터 치른 강성훈은 후반 9개 홀에서 버디 3개와 보기 1개를 묶어 2타를 더 줄이고 3라운드를 3언더파 68타로 마치며, 1~3라운드 합계

19언더파 194타로 에브리를 3타 차로 제치고 선두가 됐다. 4라운드에서도 선두 경쟁은 치열했다. 강성훈은 8번(파3)·9번(파4)·10번(파4) 홀 연속 버디로 치고 나갔다. 에브리는 1~6번 홀에서 버디 5개와 보기 1개를 치는 ‘몰아치기’로 강성훈을 위협했다. 10번 홀에서도 버디를 추가했다. 강성훈과 에브리는 14번 홀(파5)에서 나란히 버디를 잡아 공동 선두를 이어갔지만, 15번 홀(파4)에서 승부가 갈렸다. 강성훈이 약 7m 버디 퍼트에 성공한 반면, 에브리는 보기를 기록하면서 강성훈이 2타 차 단독 선두가 됐다. 16번 홀(파4)에서도 버디에 성공한 강성훈은 17번 홀(파3)을 파로 막은 뒤 18번 홀(파4)에서 보기를 치고도 우승을 확정했다. 강성훈은 이 우승으로 2020~2021 시즌 PGA 투어 카드를 획득했고, 내년 플레이어스 챔피언십과 마스터스 출전권도 따냈다. 강성훈은 우승 후 “토요일에 최종 주 선배가 많은 조언을 해준 것도 많은 도움이 됐다. 너의 경기를 하려고 노력하라. 아무것도 바꾸지 말라. 너무 공격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다른 선수가 무엇을 하는지 보지 말아라”고 조언했다며 소감을 밝혔다. /연합뉴스

아깝다, 노히트



“어메이징 류~” LA다저스 류현진이 13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스타디움에서 열린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홈경기에서 8이닝 동안 1안타 무실점의 피칭을 뽐낸 뒤 박수갈채를 받으며 마운드를 내려가고 있다. /연합뉴스



류현진, 워싱턴전 무실점 시즌 5승 8이닝 1피안타...팬들 아낌없는 박수 상대팀 1선발 연파...에이스 잡는 에이스

류현진(32·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완봉쇼에 이어 이번엔 7.1이닝 노히트 쇼를 펼치며 시즌 5승(1패)째를 수확했다. 류현진은 13일 워싱턴 내셔널스를 상대로 벌인 2019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홈경기에 선발 등판해 8이닝 동안 삼진 9개를 곁들이며 워싱턴 타선을 단 1안타, 무득점으로 완벽하게 봉쇄했다. 8회 1사까지 노히트 행진을 벌이던 류현진은 좌타자 헤라르도 파라에게 월 바운드 로 팬스를 넘어가는 인정 2루타를 맞고 아쉽게 노히트 달성 꿈을 접었다. 파라는 류현진이 이날 던진 105번째 공인 속구를 밀어 틈을 노히트 수모에서 건

져냈다. 노히트 행진이 중단됐지만, 류현진은 8이닝 무실점 패투를 선사했고, 경기는 6-0 다저스의 승리로 끝나 시즌 5승째를 신고했다. 류현진은 2013년 빅리그 진출 후 한 경기 개인 최다인 공 116개를 던졌다. 또 두 경기 연속 무실점 투구로 평균자책점을 1.72로 끌어내렸다. 또 이달 들어 3경기 연속 8이닝 이상을 던져 완투형 투수로 자리매김했다. 류현진은 올해 빅리그 최고 연봉 투수인 워싱턴의 스티븐 스트래츠버그(3833만 달러·약 452억원)와의 선발 대결에서 판정

승을 거둬 ‘에이스 잡는 에이스’로 입지를 굳혔다. 류현진은 잭 그레이키(애리조나 다이나몬즈), 매디슨 범가너(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크리스 아처(피츠버그 파이리츠) 등 각 팀 에이스들을 잇달아 무너뜨리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류현진은 경기 초반부터 안정감 넘치는 제구를 뽐냈다. 좌우 타자를 가리지 않는 컷 패스트볼과 체인지업, 속구의 정교한 제구는 예술의 경지에 올랐다. 류현진은 1회 10개의 공으로 삼진 2개를 곁들이며 삼자범퇴로 산뜻하게 출발한 뒤 3회까지 퍼펙트 투구를 이어갔다. 류현진은 4회 다시 만난 브라이언 도저에게 볼 3개를 잇달아 던진 뒤 결국 시즌 세 번째 볼넷을 허용했지만, 후속 타자 두 명을 삼진과 뜬공으로 잡고 위기를 스스로 지웠다. /연합뉴스

3회까지 공 39개를 던졌다가 4회에만 24개를 뿌린 류현진은 5회 공 10개만 던져 삼자범퇴로 이닝을 마치고 노히트 행진을 이어갔다. 류현진은 삼진 2개를 보태며 7회를 넘긴 뒤 8회에도 마운드에 올랐다. 첫 타자 커트 스즈키를 스트라이크아웃 삼진으로 돌려세운 류현진은 전날 역전 만루포를 터트린 파라와 맞섰다. 파라는 볼카운트 1볼 1스트라이크에서 146km짜리 빠른 볼이 들어오자 과감하게 방망이를 돌려 좌중간을 가르는 안타를 터뜨렸다. 류현진은 노히트가 깨진 장면을 지켜본 뒤 조용히 멧찍은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관중석의 팬들은 기립박수로 류현진에게 더 큰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류현진은 보내기 번트로 주자를 3루에 보낸 뒤 8번 타자 마이클 A. 테일러를 좌익수 뜬공으로 잡고 무실점으로 임무를 완수했다. /연합뉴스

물러설 곳 없는 KIA “믿는다, 베테랑”

지난주 1승 5패 10위 추락...이번주 KT·한화와 6연전 오늘 양현종 선발...김선빈·안치홍 등 주축 선수 반전 열쇠

T 타이거즈 전망대

더 이상 핑계는 없다. 결과로 보여줘야 하는 위기의 호랑이들이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 12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와 경기에서 3-4 패배를 기록하면서 다시 최하위로 내려앉았다. KIA는 지난 4월 21일 두산 베어스와의 홈경기에서 2-9로 지면서 6연패와 함께 10구단 체제 이후 처음 10위를 경험했다. ‘5강 5약’의 양극화 속에서 한때 7위까지 올랐지만, 지난 한 주 1승 5패의 전적에 그친 KIA는 최하위로 돌아갔다. KIA는 지난주 선두 싸움 중인 두산에 이어 SK를 잇달아 만났다. 더 이상의 핑계는 통하지 않는, 무조건 결과를 내야 하는 ‘운명의 한 주’. 벤치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대이기도 하다. KIA는 기대와는 다른 ‘우승 멤버’들의 부진 때문에 힘겨운 봄날을 보내고 있다. 선발진도 예측불허하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까지 계산하고, 전력 안정화를 꾀하는 게 벤치의 역할이다. 주먹구구식 운영에서 탈피해 큰 틀을 짜는 게 우선이다. ‘에이스’ 양현종의 어깨가 무거운 한 주

3연패로 끝났지만 11개의 안타를 생산했다. 무엇보다 잠시 흔들렸던 ‘젊은 불펜진’이 마무리 문경찬을 중심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도 희망적이다. 하지만 패배 속에서 희망만 찾고 있기에 KIA의 상황이 좋지 않다. KIA는 12일까지 41경기를 하면서 전체 일정의 28%를 소화했다. 1위 SK와는 15.5경기 차까지 벌어졌고,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5위 자리도 9.5경기 차밖에 없다. 더 격차가 벌어지면 안 된다. 특히 9위 KT 위즈, 6위 한화 이글스를 잇달아 만나게 되는 만큼 이번 한 주는 KIA의 올 시즌을 가능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더 이상의 핑계는 통하지 않는, 무조건 결과를 내야 하는 ‘운명의 한 주’. 벤치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대이기도 하다. KIA는 기대와는 다른 ‘우승 멤버’들의 부진 때문에 힘겨운 봄날을 보내고 있다. 선발진도 예측불허하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까지 계산하고, 전력 안정화를 꾀하는 게 벤치의 역할이다. 주먹구구식 운영에서 탈피해 큰 틀을 짜는 게 우선이다. ‘에이스’ 양현종의 어깨가 무거운 한 주

순위	팀명	경기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1	SK	42	29	12	1	0.707	0.0
2	두산	43	29	14	0	0.674	1.0
3	LG	41	24	17	0	0.585	5.0
4	키움	43	25	18	0	0.581	5.0
5	NC	41	23	18	0	0.561	6.0
6	한화	40	18	22	0	0.450	10.5
7	삼성	41	16	25	0	0.390	13.0
8	롯데	41	15	26	0	0.366	14.0
9	KT	43	15	28	0	0.349	15.0
10	KIA	41	13	27	1	0.325	15.5

다. 양현종은 14일 선발로 나서 KT 김민과 마운드 맞대결을 벌인다. 로테이션으로

는 19일 한화전까지 양현종이 책임진다. 윌랜드, 터너 두 외국인 선수가 제 몫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탄탄을 쉬고 선발 복귀한 김기훈의 제구 약점도 여전했다. 지난 2일 삼성전을 통해 7경기 만에 승리를 신고한 양현종은 두산전에서 패전투수가 됐지만 7이닝 1실점으로 부진 탈출을 알렸다. ‘젊은 불펜진’이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양현종이 선발진의 스타트를 잘 끊어줘야 한다. 김선빈, 안치홍 ‘키스톤 콤비’도 베테랑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김선빈의 ‘수비’, 안치홍의 ‘특정권’이 키워드 KIA 반전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EPL 맨시티 우승...손흥민의 토트넘 4위

맨체스터 시티(이하 맨시티)가 최종 라운드까지 이어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역대급’ 우승 경쟁에서 결국 웃었다. 맨시티는 13일 영국 팔머의 아멕스 스타디움에서 끝난 브라이턴 앤드 호브 앨비언과의 2018-2019 프리미어리그 최종 38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4-1로 승리했다. 이로써 승점 98(32승 2무 4패)를 쌓은 맨시티는 같은 시간 울버햄프턴과의 홈경기에서 2-0으로 이긴 리버풀(승점 97·30

승 7무 1패)를 승점 1차이로 따돌리고 정규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디펜딩 챔피언’ 맨시티는 최근 두 시즌 연속 우승을 포함, 잉글랜드 1부리그 6회(프리미어리그 4회) 우승을 달성했다. 한편 손흥민이 퇴장 징계로 결장한 토트넘은 에버턴과의 홈경기에서 2-2로 비겨 승점 71을 획득, 아스널(승점 70)의 추격을 뿌리치고 4위로 다음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확보했다. /연합뉴스